

KCHA 뉴스

험 제도는 시행과정에서 오는 시행착오와 시행전의 불충분한교육등으로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면서 그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한후 『이제도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과감히 시정하여 의료수가의 현실화와 사무 처리의 간소화를 이룩하고 의료수가기준표 및 의료 보험법을 개정하여 의료행위를 합리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80년 定總 서울개최 亞洲가톨릭 醫師會

아시아가톨릭 醫師會 정기 총회가 80년 서울에서 개최된다.

동협회의 정기 총회서울 개최는 지난 2월초 인도의 뵘베이에서 개최된 제14차 국제가톨릭醫師會 정기 총회에서 결정되었다.

이번 총회에 우리나라에선 安容八씨(가톨릭중앙의료원 의무원장)가 참석한 바있다.

◆ 伊서 國際會議— 가족연구센터 「人間生命」敎書發表 10週 맞아

이태리 「밀라노」에 있는 국제 가족연구센터(CISF)는 6월 21일부터 25일까지 「인간생명」교서 발표 1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회의를 동센터에서 개최한다. 한편 호주 「멜보른」에서는 지난 2월 10일부터 19일까지 「인간생명」교서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이회의는 「인간생명」교서 10주년을 기념한 것으로 「출산조절」에 관한 바오로 6세의 편지가 발표되었으며 「과학자와 인간생명교서」 「점액관찰법」 「가족계획의 전망」등에 관하여 빌링스박사를 포함한 국제적 의학자 및 신학자들의 발표가 있었다.

◆ 성직자 가정사목세미나 성료 행복 한 가정운동 協—4.6~4.10

행복한 가정운동협의회(회장=조규상박사)는 지

난달 6일부터 10일까지 4박 5일간 서울우이동 명상의 집에서 성직자들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가정사목세미나를 개최했다.

성직자들에게 가정사목 활동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고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마련된 이번세미나에는 총제 박토마주교를 비롯 전국 13개 교구에서 신부 23명수녀 35명등 58명의 성직자들이 참여했다. 이번 세미나는 가정사목활동에 필요한「혼인신학」강의를 통해 혼인사목의 문제점과 해결점을 모색하는 한편 자연적인 가족계획 지도원리와 기본지식을 이해 시켰다.

4개그룹으로 나뉘어 그룹토의와 전체토의를 통해 가정사목과 중요성과 문제점을 인식한 성직자들은 한결같이 『우리만 이세미나에 참석할 것이되지스러울정도』였다면서 이런형태의 세미나는,전 성직자들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모든 신자들에게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소감을 털어냈다.

또한 세미나를 마친 성직자들은 행복한 가정운동의 내용과 취지를 이해할 수 있게되었다면서『이것이야말로 성직자 수도자들이 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혼인신성성등에 무관심하여 극히 「상식적인지도」에만 그친 혼인사목 활동을반성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 자연적인 가족계획 지도용으로 제작된 영화「생명의 신비」 『인공유산의 피해』 「빌링스와의 대화」등은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행복한 가정운동 협의회는 참가자들의 요구에따라 금년중 여름과 겨울 방학을 이용하여 두차례더 세미나를 개최키로 했다.

◆ 필름〈생명의 신비〉 제작배포 가정운동協

전국 협의회에서는 지난해 〈인공유산과 여성의 결정권〉이라는 20분짜리 외국 영화를 번역, 복사하여 각교구에 나누어 드린 일이 있는데 이번에도 시 2차로 새로운 영화 〈생명의 신비〉를 번역, 배포했다.

◆ KCHA 뉴스 ◆

이 필름은 남자의 정충과 여자의 난자가 결합되어 어머니의 자궁속에서 태아로 성장, 출산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로서 생명의 신비를 잘 그려주고 있다.

이 필름은 이번 성직자 세미나에 참가한 각 교구 참가자를 통해 전달했는데 자연 가족계획 지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당국자는 「쇼크」사를 당했을 경우 의사들의 형사 책임은 면제되지만 물질적 피해 보상책임은 저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美國·日本의 경우 「쇼크」[사고가 났을 때 국가와 의사보험국에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같은 보상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DPT는 어린이「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에 방 접종약으로 최근 일부의사들이「쇼크」사고를 우려 접종을 기피해 백일해의 경우 76년환자수 1천 1백 77명에 비해 작년에는 3배 가까운 3천 1백 62명의 환자가 발생했었다.

국내의 「페니실린」에 의한 「쇼크」사고는 1만명중 1명, DPT는 10만명 중 1명꼴로 발생하고 있다.

◆ 의료계 소식 ◆

◆ 페니실린등 注射쇼크死 醫師免責

법무부는 지난달 23일 보사부의 요청에 따라 의사가 이상체질검사를 한뒤 「페니실린」주사, 혹은 DPT예방 접종을 했는데도 주사를 맞은 사람이 「쇼크」사했을 경우 의사들의 형사책임을 면제토록 조치했다.

종전에는 의사들이 피접종자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한뒤 「페니실린」주사등을 놓았을 경우에도 환자가 「쇼크」를 받았을 때는 의사에 대한 형사책임과 손해 배상등을 병과했었다.

보사부는 그동안 성병무료진료 사업을 펴면서 의사들이 「페니실린·쇼크」사를 두려워해 주사를 기피하거나 어린이들에 대한 DPT예방접종을 기피해 진료에 차질을 빚자 법무부에 요청,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의사에 대한 인신구속을 하지 않는등 면책조치를 했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페니실린」과 DPT 「쇼크」사고가 났을 경우 의사가 환자에 대한 과민성반응 검사를 했다는 기록등 증거만 있으면 형사 책임을 면제하도록 각검찰에 지시하고 보사부도 大韓의학협회와 각보건소에 공문을 시달렸다.

◆ 언청이 2萬名 成形手術

朴 대통령 指示—사업비도 支援

朴正熙대통령은 지난달 18일 비서실을 통해 의료 시혜에 관한 현황을 보고 받고 생활형편이 어려워 현재까지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전국 약 2만명의 언청이 에대해 성형 수술을 실시하여 구김살 없는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해주라고 申鉉礪보사부장관에게 지시하면서 이 사업에 보태쓰라고경비의 일부를 지원했다.

언청이 무료수술사업은 그 동안 예산 및 의료요원의 부족등으로 부진한 상태였으나 이번 朴대통령의 특별배려와 지원금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 자비수술이 불가능했던 사람들 전원이 수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수술사업은 오는 4월부터 81년까지 3년에 걸쳐 종합병 원수술만이 전국을 순회하며 2만여명의 대상자에대해 무료로 수술을 하는데 금년 한해에 소요되는 비용만도 약 1억 1천 3백만원이 나된다.

◆ 産災요양給與費 概算拂支給
4월부터 적용—노동청

노동청은 4월 1일부터 産災요양급여비 지급에 概算拂支를 적용하기로 확정하고 이를 노동청 훈령 279호로 告示했다.

이번에 개정된 산재요양비지급 규정에 따르면 의 료기관에서 산재요양 비지급 신청을 하면 즉시 청구액 전액을 지급하고 精算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次期요양급여청구금에서 감한 액수를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노동청은 요양비지 급업무를 농협과 國民銀行을 통해 지급하도록 했는데 노동청은 개산불 제적용을 앞두고 산하 각지방사무소 보상과장교육 을 지난 20일 노동청회의실에서 실시했다.

◆ 保險藥價 再調整告示
4월까지—보사부

崔守一保社部보험국장은 지난 16일 4月末까지 保險약가를 재조정, 고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崔局長은 또한 의료기관에서의 보험약품구입 원 활을 기하기 위해 고시가 이상으로 판매하는 품목 에 대해서는 보험약품에서 제외하는 등 강경한 行政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16일 共和黨에서 개최된 醫療保險 간담회에서 밝혀진 것이다.

◆ 352명에 파견 修鍊명령
13次 派遣修鍊醫—保社部

보사부는 지난달 21일 제13차파견 修鍊醫로 3백 52명을 배치하기로 확정하고 이를 해당 市道와 國立病院에 시달했다.

전국 47개 修鍊病院에서 차출된 이들 수련의는 오는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근무하게

된다.

保社部가 이날 확정시달 한 파견 修鍊醫 배치현 황에 의하면 경기도에 39명을 비롯하여 江原 30명, 忠北 31명, 忠南 36명, 全北 42명, 全南 58명, 慶北 40명, 慶南 53명, 濟州 10명, 그리고 國立病院 에 13명이 각각 파견된다.

◆ 4월을「헌혈의 달」로 血協

大韓血液管理協會는 제 6회 보건의 날을 맞아 4 월을 헌혈의 달로 설정하여 대대적인 헌혈 캠페인 을 전개한다.

血協이 계획하고 있는 행사계획에 따르면 보건의 날인 7일에는 간호원, 연예인을 동원하여 시내 요소에서 계몽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서울市와 市 警등의 협조 아래 각혈액원의 헌혈차량을 동원하 여, 계몽활동을 전개 하고 多回헌혈자 및 헌혈유 공자포창, 헌혈좌담회 개최등대대적인 헌혈캠페인 을 전개하게 된다.

◆ 金錢登錄機 의무화方針— 國稅廳
外形 月 100만원 이상 醫院級

國稅廳이 당초 권장 사항으로 했던 의원급 의료 기관에 대한 금전등록기설치 방침을 변경, 外形 이 1월 백만원 이상되는 의료기관은 모두 오는 6 월말까지 금전등록기를 설치토록 방침을 세운 것 으로 알려졌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금전등록기 문제는 지 난해 10월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대한 금전 등록기 설치는 醫療의 本質을 송두리체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醫界의 주장을 받아 들여 권장 사 항으로 돼왔었다.

國稅廳의 방침이 변경된 것은 최근에 경제 장관 들과 경제 단체 연석 모임에서 금전등록기 설치문 제가 거론되는 과정에서 현재 국가의 稅務 시책이 외형금액 월 1백만원 이상되는 업체는 모두 금전등 록기를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는데의 료기관만 제외 시키는 것은 法の 行평 원칙에 위배된다는데 의견

이 모아져 이문제가 새로운 방향에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國稅廳의 이같은 방침으로 醫界는 또한바탕금진등록기 문제가 크게 문제점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醫協은 이의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접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醫療保險 8개월간 집계-서울시 평균진료 일수 2.58일, 진료비 9,400원

서울시가 지난 2월말까지 8개월 동안 醫療保險受惠者를 대상으로 분석한 診療 1건당 소요일수 및 진료비에 따르면 평균 진료일 수는 2.58일이며 이에 소요된 평균 진료비는 9천 4백 39원으로 밝혀졌다.

市당국의 집계에 따르면 진료 1건당 평균진료비 9천 4백 39원중에서 개인이(受惠者)부담한 진료비는 3천 5백 90원이었으며 組合에서 부담한 진료비는 5천 8백 49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醫療保險受惠者들중 진료 1건당 入院日數는 5.4일이며 진료비는 6만 3천 8백 40원으로 개인이 2만 1천 7백원을 부담했고 組合이 4만 2천 1백 33원을 부담했다는 것이다.

한편 外來의 경우는 진료 1건당 소요일수는 2.39일이며 진료비는 5천 7백 11원으로 개인부담額 2천 3백 49원이었으며 組合부담액이 3천 3백 62원으로 나타났다.

◆ 勤勞者 健康診斷 자격규제 50人以上 事業場—保健管理者 50人未滿 事業場—一般病醫院

勞働廳은 78년도 事業場근로자 健康診斷실시 要領을 통해 50인 이상 事業場은 모두 사업장保健管理醫師가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50인미만인 事業場의 경우만 일반病·醫院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規制했다.

금년도 사업장 건강진단은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9개월간에 걸쳐 실시되는데 X-선관독은 1회에 한하되 방사선전문 2인 또는 大韓X-선 健診協會에서 받도록 명시했다.

그런데 勞働廳의 사업장 보건관리자 직무지침에 따르면 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에는 保健管理者(醫師)를 專任으로 배치해야 하고 50인 이상 1천명 미만 사업장에는 보건관리자를 배치하되 겸임으로 할수 있다.

한편 근로자 5백인 이상 사업장에는 보건관리 요원중 1명 이상을 전임으로 배치해야하고 전임보건관리 요원은 의사, 치과의사, 간호원, 조산원등의 면허취득자이어야 한다. 그리고 50인~5백인 사업장에는 보건관리요원 1인 이상을 배치해야 하되 겸직으로 할수 있다.

◆ 醫療裝備에 關稅特惠 보사부 재무부와 절충

申鉉禧保社部長官은 지난 29일 현재 보사부는 의료가기 또는 의료용시설자재의 수입에 대한 관세를 감면 또는 세율인하 할 수 있도록 재무 당국과 적극절충하고 있으므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病協임원진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힌 申長官은 또 醫療기관(의료원)가 절감책으로 病院協會가 會員 의료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醫療機自재의 공동구입을 전개할 것을 권유하며 이같은 의료기 공동구입에 대해서는 정부가 저리용자등 금융 지원의 편의를 최대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30일 病協이 밝힌바에 따르면 이밖에도 申長官은 病協이 건의한 의료소득의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인하 조정 의료소득중 의료사업의 재투자분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면세·의료시설의 수선유지비인 정폭확대 醫療業에 대한 출현자산의 조건부증여세 면세·의료기관에 대한 금융지원등을 검토후 반영 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良質의 醫療供給 확충다짐 보건の日 기념행사성료

제 6회 保健의날 紀念式이 7일 오전 10시 세종 문화회관 별관에서 申鉉禧 보사부장관 金龍星국회 보사위원장, 具滋春서울 市長을 비롯 韓格富 의협 회장과 金在洵 서울市醫師會會長등 保健醫療人 1천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國民保健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전국민들에게 올바른 保健啓導와 保健醫療人들의 자세 확립을 위한 기념 行事가 保社部주관 아래 서울市가 주최했다.

申鉉禧보사 부장관은 이날 치사를 통해 『국민에게 良質의 醫療供給과 醫療施惠의 확충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일선 保健網의 시설 및 장비의 개선과 醫療요원의 충원, 그리고 낙도주민을 위한 병원선진립등의 제반문제를 하나 하나 해결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WHO駐韓代表 령킨씨의 '축사도 있었는데 WHO는 올해 표어로 『높은 혈압, 높은 위험 혈압을 살피자』를 표어아래 혈압예방에 주력키로 했다.

*****회원 병원 소식*****

[바오로의 집] 開院—바오로 會 精薄兒 수용 教育말아

샬트르 성바오로수녀회 대구 관구에서 운영해 오던 부산 데레사의원이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문을 닫고 기존 의원 건물을 개조하여 뇌성마비아동이나 청신박약 아동들을 수용, 교육키위한 「바오로의 집」(원장=이태정수녀)으로 지난 1일 새출발을 보게됐다.

불구 아동들로 인한 가정의 불화와 파탄을 사전

에 예방하고 사회에서 버림받고 소외당하는 불우한 형제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함으로써 밝고 명랑한 사회건설에 이바지하게 될 「바오로의 집」은 아산 사회복지 재단의 재정적 지원을 얻어 개원하게 됐다.

이태정 원장수녀는 『가난하고 버림받은 형제들을 구제해야할 현대교회의 시대적 사명에 발 맞추어 불구아동들을 수용, 교육하는 보호시설로 「바오로의 집」이 문을 열게됐다』고 밝히고 여기에는 다른 종업원들 이외수녀만 4명이 활동하게 된다고 전했다.

그런데 바오로수녀회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이사업은 우선 현재로서는 신자가정의 불구아동 약 20명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앞으로 수용인원을 봐서 시설을 확장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한독 醫院開院—癩환자 전문治療

癩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기 위한 한독 醫院이 지난 1일 정오 河東郡內 유지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갖고 醫院長에 金源達씨(前 果川中央醫院長)가 취임했다.

한독의원은 경남하동군적량면동산리에 위치한 음성 나환자촌 영생원內에 설치된 병원으로 서독 구라협회한국지부(지부장 엠마·프라이징거)의 지원으로 1천만원을 들여 수리, 개원한 것이다.

발행 : 한국가톨릭병원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2가 1번지
(가톨릭의대 부속 성모병원 기획실내)

전화 776-4086

776-4051(교)88

Published by the Korean
Catholic Hospital Association

발행인 : 김창렬 (Rev. T.R. Paul Kim)

편집인 : 최사룡 (Dr. Shi Ryong Choi)